

지역 소식통

익산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청렴도 향상 부서별 대책보고회

익산시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강도 청렴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28일 오후4시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의 시정목표 구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돼 '청렴한 익산시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현을 익산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추진됐다.

감사담당관 외 49개 부서는 청렴캠페인, 청렴계단 오르기 청렴퀴즈와 산발, 청렴식판제, 건축허가·신고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표했다.

이 시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관행적 부당한 행위들을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시에서는 폐업 시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 하던 불편을 개선하고 시청과 세무서간 자료를 이송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이송신고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판관기자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1만2천여명 참가접수 마감

내달 9일 오전 8시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하는 2017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1만2천여명이 참가를 신청하며 성황리에 접수를 마감했다.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지난 2012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국제공인 코스로 인증 받은 이후 6년 차에 접어들면서 하프코스 신설을 통해 마라톤 마니아들에게 다양한 코스를 제공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했다.

국제여자를 신설하는 등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이 한층 격상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산=김판관기자

사각지대 없는 복지허브화 실현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군산시 선도지역 수송동·나운2동 방문 맞춤형복지 컨설팅 실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28일 군산시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인 수송동과 나운동을 방문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복지허브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복지 컨설팅을 실시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이 지역사회의 복지허브기관이 되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발굴한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공공자

원과 민간기관이 함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수송동과 나운동의 맞춤형복지팀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실시하는 후발지역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사업운영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심층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선도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송동과 나운2동이 지난해에 이어 선도지역으로 활동하면서 군산시 복지허브화사업이 전국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군산시는 시 특성에 맞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쏟으며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관기자

익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연장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개인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도모

익산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인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가 타 법률의 분할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특례법에 의한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으로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비용 절감 등의 혜택은 물론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 편의도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공유자 총수 5명의 이상 혹은 20인 이상 동의를 얻으면 시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특례법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2016년까지 42건 96필지에 대한 분할처리를 완료해 공유토지의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 관할법원에 등기확약까지 해 민원인의 등기비용을 절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28일 제201회 임시회 회기중인 가운데 소관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관련부서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 설명을 듣고 향후 추진계획을 파악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익산시 합라면 한옥체험단지를 방문하여 관련부서로부터 현황을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각종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더욱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합라 한옥체험단지를 방문하여 3단계 사업이 추진중인 한옥체험단지가 잘 마무리되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전통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은 물론 익산시를 알리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국화축제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특별경정예연계 생산업 육성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단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위원들은 공동육묘와 공동방제로 노동력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시 농산물이 전국 대형마트 등에도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원광대학교병원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선정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7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대상 병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에는 전국 22개 시·도가 응모, 치열한 경쟁을 벌여 이 중 전북 원광대학교병원을 포함 총 13곳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원광대학교병원의 "2017 양·한방 협진 중앙치료 클로버 시티 (Global City) 조성 사업"은 통합의료 선진화가 높은 해외 환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 사업은 지역별 특화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을 융합·검증하는 해외환자 유치에 관한 전략 거

점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공모 사업들을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의료기술 인프라 개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원광대학교병원은 의료기술 향상과 해외환자 진료료, 전라북도과 익산시는 관광인프라 확충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철 원광대병원 국제진료협력센터장은 "우리 병원에 맞는 특화된 의료 전라가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본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해외환자 지역 유치 활성화와 지역선도 우수 의료기술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3D프린팅산업 서브미니클러스터 정기총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익산지사는 28일 전주 터존부에서 3D프린팅산업 서브미니클러스터 회원 및 지원기관,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D프린팅산업 서브미니클러스터 정기총회 및 지원기관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출범한 지 3년째 접어드는 3D프린팅산업 서브미니클러스터가 지역 내 관련 산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내 지원기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3D프린팅 메이커스 경진대회, 3D프린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책 수립, 핵심기업의 유치 등을 위해 기업들이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기총회에 이어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의 기업지원사업 추진 방향, 산단공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인력양성사업 안내, 마케팅클럽 소개, (주)디엔티의 청소기 개발 사례 발표 등으로 이어져 참신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참석자 모두에게 관심의 집중되었다.

산단공 익산지사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오토모티브, 전자, 기계, 화학, 의료, 식품, 3D프린팅 등의 2개 산업현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지적재조사 촉랑·조사 등 대행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 선정

익산시는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3개 지구(왕궁면 발산지구, 합라면 신목지구, 오산면 영만지구)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촉랑·조사 등의 대행자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로 선정했다.

시는 우수한 지적촉랑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3월 8일 대행자 선정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0일간의 입찰공고(3월10일~20일)를 거쳐 대행자 평가를 완료했다.

대행자 평가는 지적촉랑 기술자, 촉랑장비, 재정상태, 신용도, 대행계획서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지적재조사 촉랑·조사 등의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를 선정했다.

2017년 발산·신목·영만지구의 해당필지에 촉랑비 1억3천여만원을 투입해 4월부터 지적재조사 촉랑을 실시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완료한다. 이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과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